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2일 김용익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

현장 실천력 강화 위한 5대 중점과제 발표

건보공단 서울본부 업무보고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2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지역본부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현장 실천력 강화'라는 2018년도 지역본부 운영목표와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5대 중점과제는 ▲문재인케어의 성공

을 위한 환경조성 ▲치매국가책임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수입 확충 및 재정 누수 방지 ▲고령사회에 대비한 예방증진사업 선도 ▲참여혁신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효율적 조직 등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단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안전보건공단 이호성 교육안전문화이사(왼쪽)와 미얀마 노동인구이주부 뉴웅 윈(뉴웅 윈, Nyunt Win) 근로감독기준국장이 2일 공단 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 기술 협력 협정 연장 체결을 한 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미얀마 기술지원 확대 나서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일 울산 소재 공단 본부에서 미얀마 노동인구이주부와 산업안전보건 기술 협력 협정을 연장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정 연장체결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 확대를

위해 실시했다.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교육 훈련, 기술자문, 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 인력 및 정보 교류 등 기존 협정 내용을 확대 추진하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스타트업 → 벤처기업으로 자라고 싶다면

기술보증기금

제2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모집

기술보증기금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기술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육성하기 위해 제2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기보벤처캠프는 기보가 그간 축적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과 협업을 통해 기술창업기업을 스타트업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내달 9일까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2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술혁신형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신성장정책금융센터의 신성장 공동기준 9개 테마의 품목 및 관련 기술 보유자 우

대)이다. 1차 서류평가로 80여 개 기업을 선정하고 합격자교육과 PT평가 등을 통해 50개 내외 기업을 최종 참여기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기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금융서비스(투자·보증 등)와 비금융서비스(벤처인증·멘토링·R&D지원 등)를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성공창업에 이를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제2기 기보벤처캠프에서는 제1기 기보벤처캠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비된 지원제도를 신설했다"며 "유망 스타트업을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이끌어갈 진정한 길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장학금·학자금대출 2300여 종 공공데이터 개방 “학자금 대출도 맞춤형으로”

한국장학재단

스마트 학자금 맞춤형 서비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도록 제공

각 기관별로 산재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2300여 종의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보를 앞으로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한 곳에서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전국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동데이터포털에 개방해 국민이나 벤처기업 누구나 학자금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민간 장학재단 등 전국에 산재한 2300여 종의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해 왔다. 특히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홈페이지 내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스마트 학자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학자금 맞춤형계란 각 기관



한국장학재단 스마트 학자금 맞춤형계 화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에 산재한 2300여 종의 학자금 정보를 통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와 총 교육비 정보와 학생의 거주지나 소득, 전공 주거형태 등에 따라 수혜 가능한 학자금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거나 주거, 취업, 자격증 등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번엔 기관명, 상품구분, 성적기준, 소득기준, 지원금액, 특정자격, 선발방법 등의 항목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고 격주 단위로 업데이트

함으로써 최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이용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접속해 '데이터셋'과 '데이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정보' 검색 후 조회 또는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안양옥 이사장은 "재단은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에서 사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해 민간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학생 중심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 10년간 치매 R&D에 1兆 쏟는다

복지부-과기부

체계적 로드맵 위해 지속적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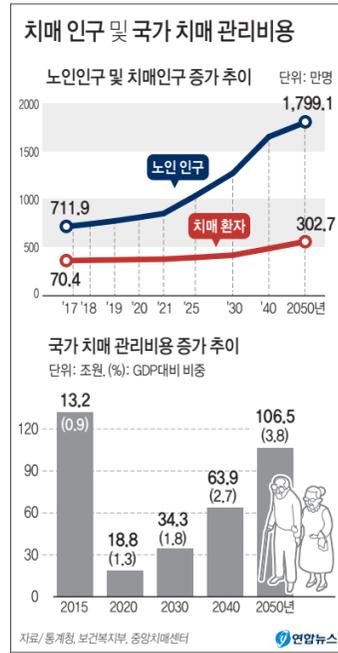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치매연구개발사업에 1조원을 투입하는 등 치매잡기에 나선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10년간(2020~2029)의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세부과제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업 기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치매연구개발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기획자문위원회인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동안 20여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과 뿐 아니라 치의과, 한의약, 간호, 임상심리 등 학회·협회 관계자, 치매치료를 개발하는 제약사 그리고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과 요양보호사 등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의과대학 김기웅 교수가 사업기획안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은 축사를 통해 "2015년 기준으로 치매관리비용은 13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이르고 있고 2017년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질환으로 치매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치매 극복을 위해 R&D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구 친화적인 기반 구축 등도 약속했다.

한편 복지부는 10년간 치매연구개발사업에 총 1조105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2019년 555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787억원, 2021년 1020억원, 2022년 1215억원, 2023년 1387억원, 2024년 1359억원, 2025년 1284억원, 2026년 1223억원, 2027년 1149억원, 2028년 1073억원의 사업비가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사업별로는 원인규명 및 예방에 2091억원, 혁신형진단에 2109억원, 맞춤형치료 2123억원, 체감형돌봄 1931억원, 인프라구축 2000억원, 운영관리에 800억원이 투입된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금융위, 소규모펀드 정리 1년 연장 시행

금융 당국이 설정·설립 후 1년 뒤에도 원본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는 작업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의 ▲자산운용·분산투자 관련 ▲수익률 관리 소홀 ▲경영비효율 초래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소규모펀드는 2015년 6월 말

815개에서 2016년 말 126개로 급감했고 지난해 말 102개로 줄었다.

전체 공모 추가형 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비중도 2015년 6월 말 36.3%에서 2016년 말 7.2%, 지난해 말 6.4%로 낮아졌다.

그러나 소규모펀드 비중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54개 자산운용사 중 43곳은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이하(27개)거나 펀드 수가 2개 이하(16개)로 목표를 충족했다. 그러나 11개 운용사는 목표 비중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됐다.

(기간별 소규모 펀드 추이) (단위:개, %)

구분	공모추가형	소규모펀드	비중
'15.6	2,247	815	36.3
'16.3	2,004	459	22.9
'16.6	1,883	294	15.6
'16.9	1,820	217	11.9
'16.12	1,757	126	7.2
'17.5	1,540	121	7.9
'17.9	1,579	106	6.7
'17.12	1,604	102	6.4

/자료=금융위

목표 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11곳도 모두 2016년 말 대비 소규모펀드가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 중에도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오래도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